

제4강 역易과 괘卦

(1교시)

◆ 易의 구조와 풀이

※ 학습목표: 역의 실제 구조를 살피고 풀이를 따라가 본다.

▲ 易의 현상에 대한 자세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란 사건을 말한다. 막연한 생성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면, 사건은 매듭을 지으며 끊어지는 생성이라 하겠다.

-그리스 자연철학이 자연을 관조하고 인식하려 했다면, 역학은 그보다 예측을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행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황을 파악하고 개념화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데 쓴 책이 역학**이다.

▲ 주역의 계사상繫辭上 전문과 한글 해석

聖人說卦 觀象繫辭焉 而明吉凶.

성인설괘 관상계사언 이명길흉

剛柔相推而生變化. 是故 吉凶者 失得之象也, 悔吝者 憂虞之象也, 變化者 進退之象也,

강유상추이생변화. 시고 길흉자 실득지상야, 회린자 우우지상야, 변화자 진퇴지상야,

剛柔者 晝夜之象也.

강유자 주야지상야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是故 君子所居而安者 易時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是故 君子居則觀

육효지동 삼극지동야. 시고 군자소거이안자 역지서야. 소락이완자 효지사야. 시고 군자거즉관

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 '自天祐之 吉无不利'.

기상아왕기사 동즉관기변이완기점, 시이 '자천우지길무불리'.

성인이 괘를 굿고 상을 보고 사를 걸어, 길함과 흉함을 밝히려 했다.

강함과 유함이 서로 밀어 변화가 생겨난다. 하여 길함과 흉함은 얻고 잃음의 상이요, 후회와 부끄러움은 안타까움과 짓눌림의 상이요, 변함과 화함은 나아감과 물러남의 상이요, 강함과 유함은 낮과 밤의 상이다.

육효의 변화가 하늘·땅·사람의 길을 세운다. 하여 군자는 역의 배열에 입각해 편안히 안거할 수 있으며, 효사를 읽음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군자가 거할 때는 상을 보고 사를 즐기지만 동할 때는 변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그를 도우니 이롭지 않음이 있겠는가”라 한 것이다.

-괘卦는 땅에다 점을 치는 것이다. 상象은 일종의 appearance로 징후·상징·기호를 뜻한다. 사辭는 말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로 길흉吉凶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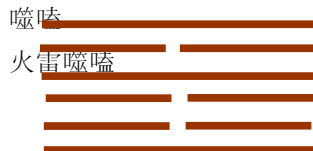
-육효六爻는 막대이다. 처음에는 거북이로 하다가 시초라는 풀로 점을 치게 된다. 효가 모여서 괘를 이루며, 그 괘를 중괘 하였을 때 육효를 이룬다.

▲ 易·괘卦의 구조와 미래예측

-강유의 밀고 당김을 통해서 양과 음의 이행이 생겨난다. 이 이행을 효로 파악하고 효들의 계열화를 통해서 괘를 파악한다. 그래서 효는 하나의 사건이고 괘는 사건들의 계열이다. 64괘란 삶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삶의 패턴들을 64개로 뽑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신의 행위의 방향을 잡게 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도 들어가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우리 삶의 반복되는 패턴들이 역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화뢰서합의 전문



▲뜻과 그림과 말

왕필에 의하면 그림이란 뜻에서 나오고 말은 그림을 밝히는 것이다.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상이 중요하다. 말은 그 다음이다. 역에서 상은 괘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 괘는 뜻을 위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괘를 풀어 놓은 글이 나온다. 그러므로 역에서 집중해서 다루어야 할 것은 그 의미이다. 즉 상수역이 아닌 의리역이 되어야 한다.

噬嗑 亨 利用獄.

彖曰 頤中有物 曰 噬嗑. 噬嗑而亨 剛柔分 動而明 雷電合而章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也.-

象曰 雷電噬嗑 先王以明罰勅法.

初九 履校滅趾 无咎. 象曰 履校滅趾 不行也.

六二 噬膚滅鼻 无咎. 象曰 噬膚滅鼻 乘剛也.

六三 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 象曰 遇毒 位不當.

九四 噬乾肺 得金矢 利艱貞 吉. 象曰 利艱貞吉 未光也.

六五 噬乾肉 得黃金 貞厲 无咎. 象曰 貞厲无咎 得當也.

上九 何校 滅耳 凶. 象曰 何校滅耳 聰不明也.

(2교시)

◆계사전繫辭傳의 핵심사상

※학습목표

역의 구조와 계사전의 핵심사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역의 구조

맨 위의 서합噬嗑이라 쓰여 있는 것이 괘의 이름이다. 그리고서 그림이 괘상이다. 화뢰서합 火雷噬嗑은 화괘와뢰괘가 중괘되었다는 설명이다. 그 다음 한 줄 있는 것이 괘사이다. 괘사는 괘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밑에 효와 효사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원래의 역경이다. 여기에 단사와 상사가 붙는다. 단사와 본래 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에 있다. 단사는 괘의 전체를 판단해 주는 것이고 상사는 효사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계사전의 핵심사상①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 位矣.(천존지비 건곤정의 비고이진 귀천위의)

動靜有常 剛柔斷矣.(동정유상 강유단의)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방이유취 물이군분 길흉생의)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재천성상 재지성형 변화현의)

-천존지비에서 비는 단지 '낮다'라는 의미만 뜻한다.

-귀천위의에서 귀천은 남녀 차별적 성격이 있다.

-동정유상에서의 상은 영원·불변의 것을 말한다.

-천지·비고·동정·방물·상현이라는 객관적 존재와 건곤·귀천·강유·길흉·변화라는 역의 원리를 대응시키고 있다.

▲계사전의 핵심사상②

是故 剛柔相摩 八卦相盪(시고 강유상마 팔괘상탕)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고지이뢰정 윤지이풍우)

日月運行 一寒一暑.(일월운행 일한일서)

乾道成男 坤道成女.(건도성남 곤도성녀)

-강은 건괘를 뜻하고 유는 곤괘를 뜻한다. 이때 건괘는 양효, 곤괘는 음효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음과 양의 다툼을 이른다.

-음과 양의 다툼으로 비와 바람·낮과 밤·더움과 추움·남과 여가 생겨남을 말하고 있다. 즉 음양적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계사전의 핵심사상③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

-성리학적 사고의 원형이다.

▲계사전의 핵심사상④

夫易 聖人之所以極深而研幾也.(부역 성인지소이극심이연기야)

唯深也 故能通天下之志 唯幾也 故能成天下之務,(유심야 고능통천하지 유기야 고능천하지 무)

唯神也 故不疾而速 不行而至.(유신야 고불질이속 불행이지)

-주역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삶의 지도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이다. 고대의 동양의 학문은 관료됨과 연관이 깊다. 그리고 관료는 정치를 함이다. 이에 따라 주역의 연구는 생사가 걸린 일들의 선택과 관련된 맥락에서의 연구가 된다. 얼핏 자연철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철학에 가깝다.

▲계사전의 핵심사상⑤

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함호위지곤 벽호위지건)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일함일벽위지변 왕래불궁위지통)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制而用之謂之法,(현내지위상 형내위지기 제이용지위지법)

利用出入 民咸用之謂之神.(이용출입 민함용지위지신)

-삶이란 것은 열고 닫는 것이다. 무엇을 열고 닫느냐, 언제 열고 닫느냐가 시간의 지도리를 형성한다.